

기관지확장증에서 고해상도전산화단층촬영술과 기관지조영술의 비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승균, 정원상, 김영학, 강정호, 지행욱, 전석철.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최근 1년간 임상소견과 단순흉부촬영소견상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된 11명을 대상으로 고해상도전산화단층촬영과 기관지조영술을 전향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연령분포는 33세에서 63세까지로 평균 47세였고 남녀비는 4 : 7이었으며 이중 5명(좌측 5, 우측 1)에서 개흉술을 시행하였으며 검사 시행 당시 기관지폐렴등의 병력은 없었다.

총 86개의 폐분절중 양 검사결과 모두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것이 23개이었으며, 기관지확장증이 없는 것이 44개로 일치율은 67/86으로 77.9%였다.

양 검사결과 19개 폐분절에서 일치하지 않았던 바, 기관지조영술 판독상 양성이었으나 고해상도전산화단층촬영상 음성인 경우가 15개, 그 반대인 경우가 4개였다.

개흉술을 시행한 22개 폐분절중 고해상도전산화단층촬영상 양성으로 나온 것이 12개, 그중 병리조직 검사상 기관지확장증으로 판정된 것이 11개로 민감도(Sensitivity)는 91.7%였으며 고해상도전산화단층촬영상 음성으로 나온 것이 10개였으나, 병리조직 검사상에서 음성이었던 경우는 3개였다.